



2026. 9. 4 (금)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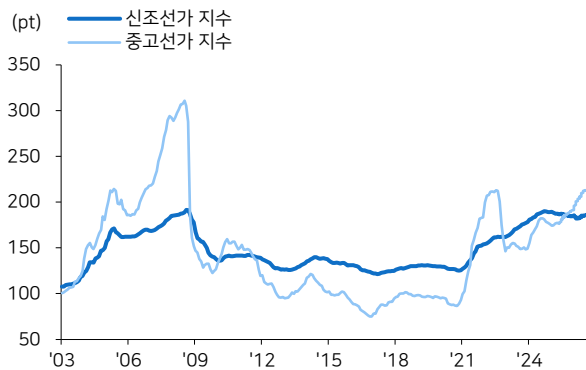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6.3p (+0.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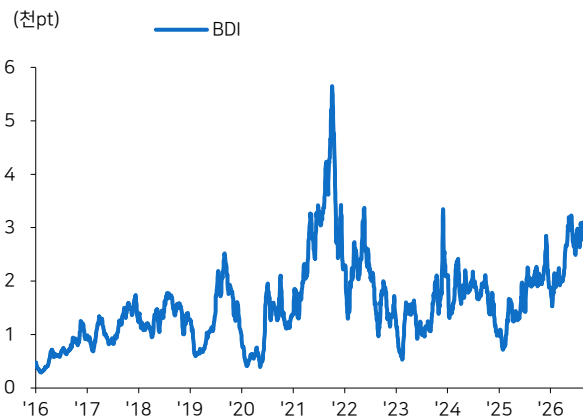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30.0달러 (+9.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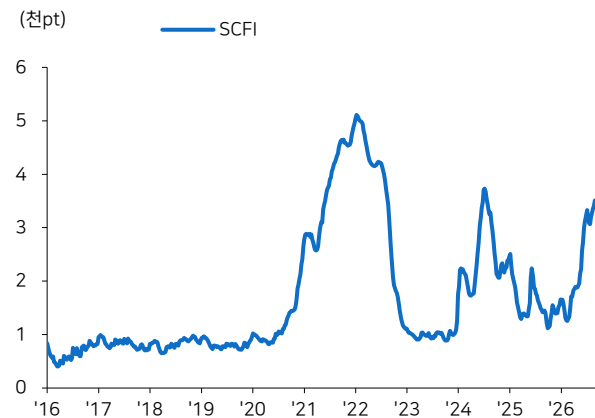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331.0p (+15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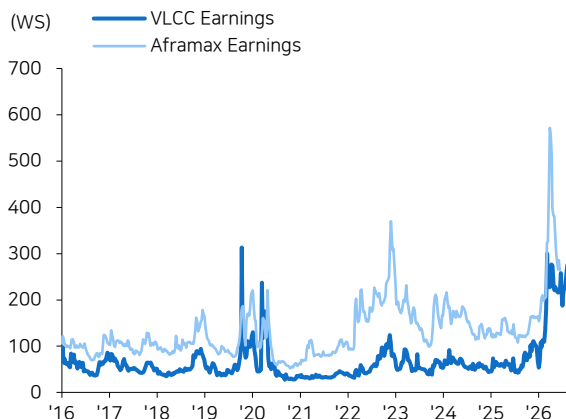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509.5 (+99.9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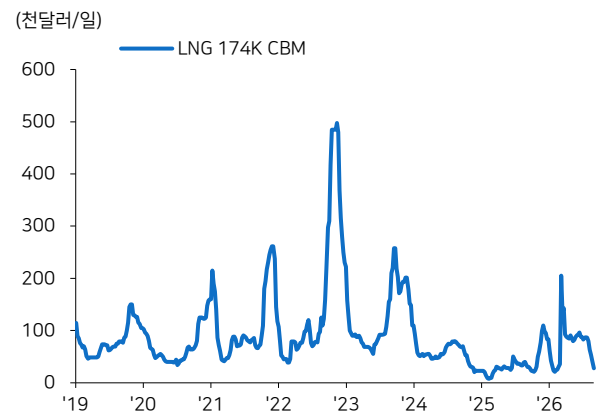
VLCC Spot Rate

401.7WS (-2.3p WoW)



LNG Spot 운임

28.0천달러 (-14.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Zodiac Maritime talks LNG carrier newbuildings with shipbuilders (TradeWinds)

<https://zrr.kr/Mutf6w>

Zodiac Maritime가 LNG 운반선 시장 진출을 검토하며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에 LNG선 건조 슬롯 확보를 협의 중이라고 보도됨. Zodiac Maritime는 LNG선 2척과 옵션 2척 규모 발주를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 용선계약 확보를 우선 과제로 두고 슬롯 연장을 협상 중이라고 전해짐. 단기 LNG선 시황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2030년 이후 신규 LNG 프로젝트 확대와 노후 선대 교체 수요를 고려해 중장기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알려짐.

HD현대중공업 노동자 7시간 부분파업 돌입 (매일노동뉴스)

<https://zrr.kr/hVodCW>

HD현대중공업 노조가 2일 확대간부를 중심으로 울산 7시간, 인천·군산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으며, 성과 분배와 초기업 교섭, 사업구조 변경 반대를 요구한다고 보도됨. 노조는 4일·8~10일 순환 부분파업과 15일 전 조합원 파업까지 단계별 쟁의 일정을 예고했으며, 임단협 교섭은 기본급과 성과급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해짐. 한편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에서 정년연장, AI 도입 시 노사 합의, 금속산업 최저임금 등에 대한 의견접근안을 마련하면서 당일 예정했던 3차 총파업은 취소했다고 알려짐.

HD한조양, 中 룽팅과 밀월... 중국산 선박 뼈대 확보로 '원가 경쟁력' 고민 해결 (더구루)

<https://zrr.kr/cUqECb>

HD한국조선해양이 중국 특수강 업체 Longteng Special Steel과 조선용 철강재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며, 형강을 비롯한 핵심 원자재 조달처 다변화에 나선다고 보도됨. 양사는 조선용 형강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앵커체인 소재, 엔진 부품용 강괴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가격·품질·납기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협의했다고 전해짐. Longteng Special Steel은 연간 450만 톤 규모의 특수강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국 최대 선박용 형강 업체로, HD한국조선해양은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통해 원가 경쟁력과 수주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알려짐.

부산, 삼성중공업 R&D 거점 견인...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가속 (머니투데이)

<https://zrr.kr/Yd7nae>

부산시와 삼성중공업이 부산 R&D센터 확장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해양산업 생태계 강화와 설계 인력 확충에 나선다고 보도됨. 삼성중공업은 Delfin FLNG 프로젝트 설계 착수로 증가한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R&D센터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짐. 양측은 R&D 기능 확대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조선·해양 기술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짐.

Chevron eyes \$7 billion investment to double production in Venezuela (Upstream)

<https://zrr.kr/ijJZi4>

미국의 대형 에너지 기업 Chevron이 향후 5년 동안 70억 달러를 투자해 베네수엘라 내 원유 생산량을 현재의 두 배 이상인 일일 60만 배럴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정부와 합작 투자 조건 개정에 합의했다고 보도됨. 이번 합의에 따라 Chevron이 49퍼센트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법인 Petroindependencia는 오리노코 벨트에 위치한 Carabobo-1 및 Carabobo-2-South-A 지역의 개발권을 확보하며 기존 운영 면적을 대폭 확장하게 된다고 전해짐. 개정된 재정 및 법적 조건을 바탕으로 Petropiar 및 Petroboscan 등의 합작사업과 함께 저비용·고효율의 안정적인 장기 원유 생산 거점을 다져나갈 방침이라고 알려짐.

Alternative-fuelled newbuildings hit 22-month high as orders pile in (TradeWinds)

<https://zrr.kr/WO1tf0>

노르웨이 선급인 DNV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전 세계에서 총 52척의 대체 연료 선박이 발주되어 2024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월간 발주량을 기록했다고 보도됨. 이번 발주는 LNG 이중연료 추진선이 주도했으며, 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 30척과 자동차 운반선 12척을 비롯해 에탄올 추진 벌크선 4척, 수소 추진 벌크선 2척, LNG 버커링 선박 1척 등이 포함됐다고 전해짐. 이로써 올해 1부터 8월까지 누적 대체 연료 선박 발주량은 총 242척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퍼센트 증가했으며, 이 중 LNG가 전체의 63퍼센트를 차지하며 핵심 연료유로서의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